

새로운 가족사의 추구

— 근대 한국의 족보편찬과 중인층의 반응 —

유진 Y. 박(Eugene Y. Park)

『역사문제연구』 제20호

2008. 10. 30.

역사문제연구소

연구논문

새로운 가족사의 추구

— 근대 한국의 족보편찬과 증인층의 반응 —

유진 Y. 박(Eugene Y. Park)*

머리말

중세·근세 한국에서의 신분, 출계 및 족보

전통의 창출

지배담론의 거부

객관적인 가족사기록으로서의 족보

맺음말

머리말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창출된 전통(invented tradition)은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분을 이룬다.¹⁾ 1894년 갑오경장으로 노비제도의 혁파 이

* UC Irvine 사학과 부교수.

대표논저: *Between Dreams and Reality: The Military Examination in Late Chosŏn Korea, 1600~1894*,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7; "Status and 'Defunct' Offices in Early Modern Korea: The Case of Five Guards Generals(Owijang), 1864~1910", *Journal of Social History*, Vol. 41, Issue3, Spring 2008.

1) 13세기 한국은 고조선(?~기원전 108)을 한국사상 최초의 왕조로 인지하는 역사서술을 보였다. 전설상으로 건국연도가 기원전 2333년이었던 바, 근대 민족주의 한국사가들과 많은 한국 인들은 한국사가 5천년 정도 지속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20세기 초 민족주의 역사학자였던 단재 신채호(申采浩)(1880~1936)는 한민족의 근원을 고조선의 신화적 개창자였던 단군(檀君)에 연결시키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Henry H. Em, "Minjok as a Modern Construct: Sin Ch'aeho's Historiography", Gi-Wook Shin and Michael Robinson (ed), *Colonial Modernity in Kore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9, pp.

래 한 세대가 채 지나지 않은 20세기 초에 들어오면, 모든 한국인은 성(姓)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이 양반 선조의 후손이라 주장하였다.²⁾ 오늘날 대다수 한국인은 20세기 직전에 생존했던 조상들의 동향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며,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4명 정도만 거명할 수 있는 것 같다.³⁾

남한의 경우, 개별 부계(父系) 친족집단의 역사라는 명목으로 기본 서사들(master narratives)이 일반적인 족보(族譜) 논의의 틀을 구성하고 있는 형편이다. 남한 인구의 절반은 280개의 성씨(姓氏) 중 가장 흔한 성씨 5개를 자신의 성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성씨 자체 보다는 ‘김해 김씨’, ‘전주 이씨’ 또는 ‘밀양 박씨’ 등과 같은 형식으로 성씨 앞에 본관도 붙어야 적어도 명목상의 씨족 또는 출계집단(出系集團, descent group)이 지칭된다.⁴⁾ 남한에서 가

339~343.

- 2) 역사적으로 성씨와 본관의 결합은 특정 부계 친족집단의 존재를 표시해 왔으며, 근세(1500~1880)에는 귀족 또는 양반의 후손임을 강조하는 상세한 족보로 구현되었다. 1894년 노비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기 훨씬 전에, 노비 등 성씨를 가질 수 없었던 신분집단들의 인구는 18세기말 급속도로 줄어들었지만, 원인 요소들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James B. Palais,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Yu Hyŏngwŏn and the Late Chosŏn Dynasty*,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1996, p. 251. 1896년에서 1907년 사이의 호적에는 성씨가 없는 남성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 시기 호구자료 165책이 일본 교토대학교 박물관에 전해지고 있는데, 필자는 미국 UC 어바인의 랭슨(Langson)도서관 소재 마이크로필름 사본(Microfilm M 000797)을 열람하였다.
- 3) 필자는 수년간 미국에서 동아시아의 근대성 강화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사촌 이상 거리의 친척들을 만난 적이 있는지를 형식의 구애 없이 조사했다. 동아시아에서 자랐든 미국에서 자랐든, 부계상 동아시아 출신일 경우 부계상 유럽 출신일 경우에 비해 그러한 친척 등을 만났을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 자신의 선대에 대한 빈약한 지식은 해방이후의 동아시아의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가 그 이전의 친족집단들을 해체시키고, 구성원들의 이탈은 개개인의 다양한 사회적 지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국의 이러한 현상은 Denise Potrzeba Lett, *In Pursuit of Status: The Making of South Korea's "New" Urban Middle Clas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8, p. 223 참조.
- 4) 남한의 2000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총 인구 45,985,289명 중 5대성(大姓)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김씨 9,925,949명(21.6%), 이씨 6,794,637명(14.8%), 박씨 3,895,121명(8.5%), 최씨 2,169,704명(4.7%), 그리고 정씨 2,010,117명(4.4%). 한국국가통계원 통계청, 『총조사인구(2000)』, 『KOSIS 국가통계포털: 한국통계정보서비스, 2000』, <<http://www.kosis.kr/>> (2007. 10. 10 열람). 본고는 한국어 표기에 있어 McCune-Reischauer 로마자표기법을 사용하였으나, 실제 위의 5대성 중 하나를 쓰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들의 성씨를 표기함에 있어 다양한 방식을 쓰고 있다. 이씨의 경우 Lee, Rhee, 또는 Yi를, 박씨의 경우 Park, Pak, 또는

장 혼한 이 세 성관(姓貫)은 남한인구의 약 4분의 1을 점하고 있다.⁵⁾ 전체 인구 중 상당수가 자신의 본관을 알지 못하는 공산주의 체제하의 북한과는 달리,⁶⁾ 오늘날 남한에서는 19세기 양반의 후손이든, 상민의 후손이든 또는 천

Bak을, 최씨의 경우 Choi나 Choe를, 그리고 정씨의 경우 Chung, Jung, 또는 Jeong을 혼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현재 학계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중국인명은 Pinyin 로마자표기법, 일본인명은 Hepburn 로마자표기법에 의해 표기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인명의 경우 McCune-Reischauer 표기법뿐만 아니라 남한정부의 문화관광부가 2000년 반포한 표기법, 북한의 McCune-Reischauer 표기법, 그리고 한국인들의 개인적인 표기들의 혼용은 급증하고 있는 서양언어권의 한국관련 지식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극심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Toyotomo Hideyoshi)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이순신은 어떻게 검색해야 할지(Yi Sun-shin, Lee Soon Shin, Rhee Sunshin 등) 난감할 따름이다.

- 5) 1960년, 1985년, 2000년의 성씨관련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김해 김씨, 전주 이씨, 밀양 박씨의 경우 적어도 수십 년간 남한에서 3대 성관이었다. 최덕교·이승우 편저, 『한국성씨대관』, 창조사, 1971, 46~47쪽, 62쪽, 270~271쪽, 276쪽; 중앙일보사 엮음, 『성씨의 고향』, 중앙일보사, 1989, 225쪽, 745쪽; 통계청, 『총조사인구(2000)』, 흥미롭게도 19세기 말~20세기 초 경기도지역 호적자료 분석에 따르면, 김해 김씨와 밀양 박씨는 호주의 성관으로 인구상 1위와 3위를 차지했다. 오성, 『한국근대상업도시연구: 개성, 인천의 호적대장 분석을 중심으로』, 국학자료원, 1998, 179쪽. 가장 혼한 성관의 인구별 순위는 늦어도 19세기 말에 거의 고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글의 심사위원 1명은 전주이씨의 경우, 현존하는 방목(榜目)에는 이미 15세기 이후 문과, 무과, 생원진사시, 잡과 등 모든 과거 시험에서 합격자 배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필자의 19세기 말 시기 설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데 과거시험 합격자의 출신 성관을 가지고 인구전체상 성관 분포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문과는 급제자의 약 70% 정도가 20세기 초에 간행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란 종합보(綜合譜)에 기록된 가장 현달한 양반 사대부 가문 출신들이었다. 조선후기(1700~1863)에 들어오면 평안도 정주 출신들의 약진과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급제자들의 출신배경이 다양해지지만, 전반적으로 문과급제자들은 조선사회의 극소수를 대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생원진사시의 경우 합격자들의 가문배경이 보다 다양했지만, 이 들 또한 조선사회의 엘리트층을 대표했다. 그리고, 성관으로서 전주 이씨의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전주 이씨는 종친, 즉 국왕으로부터 4대 이내 범주의 친직계 후손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 초기의 경우, 태조 이성계(재위 1392~98)의 팔촌 범주 밖의 먼 전주 이씨 계파들도 정치적으로 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주 이씨 출신의 문과 급제는 두드러지지 못하다가 16세기에 와서야 그 동안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종친들의 범주를 벗어난 후손들의 문과 진출을 시초로 급제가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문과, 생원진사시, 전주 이씨 성관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서울 전문직 중인이 특점한 잡과 시험의 특성을 본다면, 신분적 배경이 훨씬 다양했던 15만 명에서 17만 명 정도의 무과급제자들 사이의 성관 분포가 가장 대표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하층민의 대대적인 무과 진출은 조선 후기의 현상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자는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전주 이씨 등 3대 성관의 인구 순위가 고정된 것이 물론 더 이른 시기였을 수도 있지만 늦어도 19세기 말에는 고정되었을 것이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민(대개 노비)의 후손이든 모두가 근세(1500~1880)에 형성된 가문사(家門史) 관련 서사들을 운위, 유지하고 있다. 역사적인 실체로서의 출계집단에 대한 인식은 제도적으로도 고착되었으며, 남한의 경우 동일 출계집단의 구성원, 즉 동성동본(同姓同本)일 경우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상의 조항이 개정된 것은 불과 수년만의 일이다.⁷⁾

근대 한국인의 조상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는 명백한 오류가 존재한다. 1천 년전의 경우, 본관으로 개인의 친직계(親直系)상 연원을 지칭하는 관행은 인구의 극소수인 지배층에 국한돼 있었다.⁸⁾ 현대 한국인의 성관이 진정한 생물학적 출자를 표시한다고 보는 것은 남한 인구의 3분의 1이 10세기 당시 5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로 추정되는 고려왕조(918~1392) 통치권 총인구

6) 북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본관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아는 북한인들도 없지 않다. 후자의 경우 자신의 항렬이나 소속 계파에 대해 알지 못하더라도, 자신과 같은 성관의 유명한 역사적 인물을 거론하며 자부심을 보이는 경우도 더러 있다. 북한 주민의 성관이나 족보에 관한 한정된 지식은 봉건적 관행을 용인하지 않는 북한체제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영중, 「북한주민들에게 잊혀진 민족유산 족보」, 『한국인』 17-5, 1988, 74~75쪽. 그런데 1990년대 이래 북한정부는 역사, 고고학적 유물들을 발굴·전시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게 되었고, 동시에 더 많은 주민들이 본관과 족보의 개념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92년 정부가 고려왕조(918~1392)의 도읍지 개성에서 다양한 발굴사업을 벌였을 때, 고려 왕가의 후손으로 보이는 왕지성 씨는 수십 년간 집안에서 지켜오던 1905년 간행본 족보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들은 그 전까지 선조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부친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봉건잔재'를 자녀들에게 보일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는 회고하기를, 2년 후 부친이 사망하기 직전 가족에게 선조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었다고 한다. 김지영,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남북합의법으로 운영될 통일국가의 옛 수도: 개성공업지구로 달리는 개성 사람들」, 『민족21』, 2003. 4. <<http://www.minjog21.com/news/read.php?idxn=264>> (2007. 6. 14 열람).

7) 그러나 그런 부부의 인구가 증가하므로, 정부는 몇 년에 한 번씩 기간을 정해 그들로 하여금 혼인을 신고와 자녀들의 출생 신고를 허용하였다. 1997년 7월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불혼 취지의 법률이 위헌은 아니지만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하고, 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1999년 1월 1일자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동성동본 금혼 위헌', 현재, 헌법 불합치 결정 8촌 이내 계속 금지」, 『조선일보』 1997. 7. 17. 동성동본 통혼 금지에 대한 비판론자와 지지론자들 간의 열띤 공방으로 인해 국회는 2005년 3월이나 민법개정안을 가결할 수 있었다(2008년 1월부터 효력 발생). 「국회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가결」, 『동아일보』 2005. 3. 2.

8) 이수건,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1984, 9~21쪽; 송준호, 『조선사회사연구: 조선사회의 구조와 성격 및 그 변천에 관한 연구』, 일조각, 1987, 94~108쪽.

중 오직 4명의 남성의 친직계 후손이라는 얘기가 된다.⁹⁾ 이뿐만 아니라, 부계로 유전되는 Y염색체내의 돌연변이 분석은 어느 두 남성 간의 공통 친직계 조상이 대략 몇 세대 전, 즉 언제 생존했는가의 추정도 가능케 하는데, 대부분 한국인의 경우 성관은 실제로 생물학적 혈연관계를 나타내면 징표로서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¹⁰⁾ 결론적으로 볼 때, 현재 한국인의 성관 및 족보 인식은 진정한 선조와 출계를 드러낸다기보다, 근세 당시 자신의 계보에 무지한 하층민들, 즉 한국인 인구 대다수가 기존 출계집단과의 관련을 주장하며 족보를 취득하기 시작한 상황을 반영한다. 이러한 현상은 위조된 족보의 간행과 더불어 가속화 되었고, 남한에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¹¹⁾

- 9) 대부분의 박씨, 신라 계통 김씨, 가야 계통 김씨, 그리고 모든 전주 이씨는 10세기 당시 조상으로 각기 경명왕 박승영(재위 917~923), 경순왕 김부(재위 927~935), 김상좌(10세기초 생존?), 그리고 이공휴(10세기 생존?)를 내세운다(중앙일보사 편, 앞의 책, 165~166쪽, 226~227쪽, 641쪽, 742쪽). 그러나 이 4명의 인물과 다른 박씨성, 김씨성, 이씨성 인물들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신빙도 높은 자료는 없다.
- 10) Y염색체 돌연변이 분석을 통해 현재 인류의 동아프리카 기원 및 이주 과정의 개설서로는 Spencer Wells, *The Journey of Man: A Genetic Odysse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2002 참조. 한국 남성인구 중 가장 흔한 Y염색체 돌연변이의 분석 연구논문은 Seung-Bum Hong et al., “Y-chromosome Haplogroup O3-M122 Variation in East Asi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Peopling of Korea”, *Korean Journal of Genetics*, Vol. 28, No. 1, March 2006, pp. 1~8; Han-Jun Jin et al., “Y-chromosome Haplogroup C Lineage and Implications for Population History of Korea”, *Korean Journal of Genetics*, Vol. 28, No. 3, September 2006, pp. 253~259 참조.
- 11) 지역 차원의 많은 문중은 족보가 없거나 선대를 모르는 동성동본 가구들을 족보에 편입 시켜 주는데, 대신 족보 편찬 비용이나 기타 다양한 문중행사의 재정적 지원을 기대한다. 남한의 활성화된 족보 편찬에 대해서는 *Korea Annual, 1992: A Comprehensive Handbook on Korea*, Seoul: Yonhap News Agency, 1992, pp. 353~356; Lett, *In Pursuit of Status*, p. 40; 이기백, 「족보와 현대사회」, 『한국사시민강좌』 24, 1999, 112~115쪽 참조. 흔한 성관일수록 족보에서 자신이나 자신과 연결되는 선조를 찾기가 어렵다. 예컨대 남한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밀양 박씨의 경우(2000년 당시 3,031,478명), 불과 13%만이 간행된 밀양 박씨 족보에 등장하는 반면, 남평 본관을 포함한 문씨의 경우 2000년 통계 인구 42만 명 중 42%에 불과한 17만 명만이 문씨 족보에 등장한다. 필자는 밀양 박씨 관련 수치를 13%로 산정했는데, 밀양 박씨의 12계파 중 규모가 가장 크며 전체 밀양 박씨의 70~8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규정공파(糾正公派)가 1981년 16권에 달하는 규정공파 대동보(大同譜)를 편찬했고, 이 족보에 기재된 사람들의 숫자가 20만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근거로 산출하였다. 『밀양박씨규정공파대동보』 1권, 밀양박씨규정공파대동보소, 1981, 256쪽, 발문. 반면 밀양 박씨의 다른 11개 계파의 인구는 훨씬 적으며, 개별 족보의 권수에서도

그런데, 기존 연구업적은 근세 하층민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 계보와 관련된 주장들을 제기했음을 밝혀냈지만, 다양한 사회집단 간에 그러한 방식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아직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에는 성이 없던 노비들조차 새로이 성씨뿐 아니라 본관 및 족보를 획득하였다는 사실은 물론 잘 알려져 있다. 또 부유하지만 족보가 없던 하층민들은 고귀한 혈통을 지녔지만 빈곤한 양반들과 거래하여 그들의 가계기록에 편입되 고자 하였는데, 그러한 거래를 막으려는 국가의 노력은 소용이 없었다.¹²⁾ 그런데 이러한 근세 한국의 사회변동태를 볼 때, 양반 이외의 계층들이 신분상승을 도모하며 모두 같은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궁금해진다. 신분의 차이에 따라 족보편찬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까?

현대 한국사회에서 족보에 대한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인(中人)의 문제이다. 이들은 신분제도가 붕괴하기 전에는 양반과 상민들의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광의의 중인은 역관(譯官), 의관(醫官), 음양관(陰陽官), 율관(律官), 산원(算員), 화원(畫員), 사자관(寫字官), 악인(樂人) 및 장교(將校)를 포괄하고, 상층(上層)의 서리(胥吏)와 향리(鄕吏)도 포괄하며, 양반 서얼(庶孽) 및 북도(北道) 상층민도 아우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협의의 중인은 서울지역의 전문직 관원(官員) 및 그 친인척만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¹³⁾ 정의 문제를 떠나서, 중인은 상당한 규모의 문화적·경제적 자산 축적

그를 알 수 있다. 문씨 인구의 경우, 검색 가능한 족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당 종중의 홈페이지에 근거한 것이다. 결국 남한에 족보에서 자신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성관 인구의 10%에서 50% 사이인 셈이다. 통계청, 「총조사인구(2000)」; 남평문씨대중회, 「전자 대동보」, 2007, 『남평문씨대중회』, <<http://www.moon051.com/index-jokbo.htm>>(2007. 5. 1 열람).

- 12) 근세 한국 족보에 대한 유익한 논의로는 이수건, 앞의 책, 32~33쪽; 송찬식, 「족보의 간행」, 『한국사시민강좌』 24, 1999, 50~66쪽; 백승종, 「위조 족보의 유행」, 『한국사시민강좌』 24, 1999, 67~85쪽; Sungjong Paik, "The Formation of the United Lineage in Korea", *The History of the Family*, Vol. 5, No. 1, 2000, pp. 75~89 참조.
- 13) 개념 정의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조성윤, 「조선후기 사회변동과 행정직 중인: 경이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엮음, 『한국근대이행기 중인연구』, 도서출판 신서원, 1999, 68~72쪽 참조. 17세기 이전의 경우 특정 가문이 한 세대 이상 잡과 입격자를 배

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이전에는 양반 위주 정치적 의결구조에서 배제돼 있었다는 점에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¹⁴⁾ 다만 다양한 중간계층 부류들이 서로를 ‘중인’이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지했는지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자는 일단 협의의 서울 전문직 중인과 그 친인척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고는 19세기 신분제 붕괴의 가속화와 함께 신분과 과거에 대한 한국사회 내 인식의 변화는 중인의 족보편찬에 대한 태도에 반응되어 왔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조선후기(1700~1863) 중인 가문들은 족보 기록을 유지, 보존했지만, 근대에 들어와 그들과 자손들의 족보를 대하는 태도는 다양했다. 일부는 상민 또는 천민들이 지향한 계보조작을 통해 전통을 창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중인은 족보 편찬 작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신분과 혈통에 관련한 지배담론 자체를 거부하였다. 그 외중에 어떤 이들은 객관적인 가족사 기록으로서의 족보 편찬에 계속 동참하기도 하였다.

중세·근세 한국에서의 신분, 출계 및 족보

근세이전 한국에서 신분과 족보는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했다. 현달한 조상이 많고 적음은 개인의 신분에 반영되었다. 근세에 들어와서도 여러 세대를 관통하는 가계 기록을 소지한 것은 일반적으로 양반 및 중인뿐이었다. 동시에 하층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성씨와 본관, 그리고 족보를 획득하였다. 어느 개인이 자신의 신분과 인생의 진로를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야말로 근대성의

출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필자의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따르면 문지가 낮은 전문직 중인 가문 중 일부는 다른 중인가계와 배타적 통혼관계를 19세기에 들어와서야 맺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추후 연구가 요망된다.

14) 이러한 관측을 제시하는 연구논저들은 인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최근 발표된 영미권 연구로는 Kyung Moon Hwang, *Beyond Birth: Social Status in the Emergence of Modern Kore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4, pp. 47~52.

핵심요소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¹⁵⁾

중세 한국(800~1500)에서는 엘리트들의 친족관계 및 출계 개념 설정에 부계 혈통은 보다 결정적인 요소로 부상하였다. 936년 후삼국의 통일과 중앙 집권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려왕조는 지방 유력자들에게 성씨를 하사했는데, 이들은 점차 세습 향리화해갔다. 동시에 958년 새로 채택된 과거제를 통해 중앙정부의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자격도 획득하였다.¹⁶⁾ 여러 세대를 거쳐 중앙 관직자를 배출한 가문은 수도인 개경에 세거하면서 귀족화 되었는데, 이들은 선대에 향리직을 세습했었던 출신지를 본관으로 간주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명하였다.¹⁷⁾ 물론 상속 및 거주지 선택에 있어 모계 혈연 또한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지만, 본관 의식의 강화는 부계 친족 및 친직계 출계 개념의 강화로 이어졌고, 이런 현상은 특히 지배층에서 두드러졌다.¹⁸⁾ 또 중앙관직의 수가 고정되면서, 귀족들은 일찍이 신규 중앙관료가문의 충원 집단이었던 향리층의 중앙정부 진출을 점차 어렵게 만들기까지 하였다.¹⁹⁾

15) 예컨대 근세 일본에는 무사 지배층이 농민과 상인에게 일정한 양보를 해야 했는데, 성씨 사용, 휘장을 단 기모노의 착용, 그리고 칼의 패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Conrad Totman, *Japan Before Perr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1, p. 230; Anne Walthall, "Peripheries: Rural Culture in Tokugawa Japan", *Monumenta Nipponica*, Vol. 39, No. 4, Winter 1984, pp. 371~92. 계층형성 및 정치참여에 대한 보다 이론적 논의로는 Ferenc Feher and Agnes Heller, "Class, Democracy, Modernity", *Theory and Society*, Vol. 12, No. 2, March 1983, pp. 211~244 참조.

16) 이수건, 앞의 책, 60~69쪽. 양반조차 음서보다 중시한 과거제도 외에, 향리의 경우 남반(南班) 서리직 또는 기능직을 통해 중앙정부에 입성하기도 하였다. 어느 특정 가계가 대대로 중앙정부 관료를 배출하게 되면 양반, 즉 중앙귀족 가문으로서의 신분상승을 의미하였다. John B. Duncan, *The Origins of the Chosŏn Dynasty*,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2000, pp. 52~86. 고려의 음서제도에 대한 저명한 연구로는 박용운, 『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 연구』, 일지사, 1990; 김용선, 『고려 음서제도 연구』, 일조각, 1991 참조.

17) Duncan, *The Origins of the Chosŏn Dynasty*, pp. 31~32, 53, 144.

18) Martina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Cambridge, Mass.: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1992, p. 53.

19) 그 결과 1383년에서 1390년 사이에 조정은 향리로서 어떤 경로로든 중앙관직을 얻은 경우 원래의 세습 의무로 복귀토록 강제하고, 동시에 규정된 최하 관품 소지 및 증빙서류 제출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고려사』(영인본), 아세아문화사, 1990, 75권, 48뒤~49앞쪽. 필자의 경우 14세기 말 이후 비(非)양반가계 출신인물이 과거,

중세후기에 조선왕조(1392~1910)를 개창한 양반 사대부들은 향리층의 중앙 관료 진출을 사실상 차단시켰고, 동시에 자신들 스스로의 위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성리학적 이상에 근거한 친직계 중심 가족 제도를 더욱 강하게 주장하였다. 조선후기에야 마무리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양반 사회는 적장자(嫡長子)를 중요시하다 보니 그 외의 적자뿐만 아니라 딸, 첩, 서얼 등을 차별대우하게 되었다. 적장자가 아닌 아들과 딸에게 상속분은 감소하였고, 서얼은 아예 아버지의 양반신분을 세습하지 못했다.²⁰⁾ 양반 남성은 적자가 없는 경우, 서자가 있더라도 가문 내에서 적자신분인 조카나 조카뻘을 자신의 계자(系子)로 세우게 되었음이 그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²¹⁾

17세기 만주족의 중국 정복은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로 하여금 조선을 이른바 소중화(小中華)로 인식하게 하였다. 당시 조정의 예송논쟁(禮訟論爭)에서 볼 수 있듯이, 성리학을 정통학문으로 수용한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그들은 스스로를 세도(世道), 즉 문명의 수호자로 보면서, 친족 및 출계에 대한 개념 규정과 의식에서 부계적 성격을 강고하게 했다.²²⁾ 아울러 하나의 소문중(小門中), 좀 더 큰 문중이나 계파, 더 나아가 성관으로 대표되는 씨족 전체의 구성원 기록을 목표로 한 족보 간행이 양반들 사이에 보편화되었다.²³⁾ 이를

관품, 또는 관직을 통해 자신이나 후손의 양반신분 상승을 성공시킨 사례를 본 적이 없다.

20)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pp. 207~230, 267~273.

21) Mark A. Peterson, *Korean Adoption and Inheritance: Case Studies in the Creation of a Classic Confucian Society*, Ithaca, New York: Cornell East Asia Program, 1996, pp. 104~106, 163~164, 189~190.

22) JaHyun Kim Haboush, *A Heritage of Kings: One Man's Monarchy in the Confucian World*,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88, pp. 23~24; eadem, "Constructing the Center: The Ritual Controversy and the Search for a New Identity in Seventeenth-Century Korea", JaHyun Kim Haboush and Martina Deuchler (ed.), *Culture and the State in Late Chosŏn Kore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9, pp. 62~81.

23) 이수건, 앞의 책, 32~33쪽. 종중(宗中)이란 개념의 강화를 한국사회가 성리학에 집착하여 보다 폐쇄적으로 변화하는 일면으로 해석 할 수도 있겠지만, 신분을 거의 막론하고 자료상 확인이 가능한 씨족 구성원을 모두 기록코자는 취지의 족보의 출현은 한국의 근대성 논의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현상인 듯 하다. 미야지마 히로시, 손병규 옮김, 「근대를 다시 본다: 동아 시아의 관점에서」, 『창작과 비평』 120, 2003, 275~279쪽 참조.

위해 편찬자들은 일찍이 증세에는 가구들이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가승보(家乘譜) 성격의 가계 기록들을 수집하였다.²⁴⁾

증빙 자료가 부족한 가문들은 전통을 창출하기도 하였다.²⁵⁾ 17세기 편찬되었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합보인 『씨족원류(氏族源流)』는 성관이 같은 여러 가계들을 어느 한 시조로 굳이 연결시키지 않고, 동시에 양반 사대부 가계 선대의 향리직 종사사실과 가계와 관련된 상이한 복수 전승기록들을 제시하고 있다.²⁶⁾ 이와는 대조적으로, 19세기 족보들은 그러한 계파들을 공통의 조상을 매개로 묶기도 하고 가문의 기원을 좀 더 과거로 소급시키기도 했으며, 많은 경우 중국 기원설을 주장하곤 하였다.²⁷⁾ 이러한 족보들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 ① 연대간 격차 및 시기적 오류, ② 특정인을 선조 또는 친족으로 기술한 여러 전승 기록의 상충되는 주장, ③ 신빙성 있는 사료로 입증되지 않는 선조의 경력 주장, ④ 선조의 이력 누락 또는 위조를 통해 가계의 한미한 연원을 숨기거나, 다른 가계에 접목해 넣는 등의 문제들이 그것

24) 1476년 간행된 안동 권씨 성화보(成化譜)와 1565년에 발간된 문화 유씨 가정보(嘉靖譜)가 초기의 전형적 사례들이다. 족보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분석으로는 Edward W. Wagner, "The Korean Chokpo as a Historical Source", Spencer J. Palmer (ed.), *Studies in Asian Genealogy, Provo, Utah: Brigham Young Univ. Press, 1972*, pp. 141~152 참조

25) Eric Hobsbawm, "Introduction: Inventing Tradition", Eric Hobsbawm and Terrence Ranger (ed.),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3, pp.1~9.

26) 예컨대 의성 김씨의 선대와 어느 한 창녕 조씨(曹氏) 계파의 경우, 저자는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계보 부분에 있어서 각각 두 가지의 상이한 전승을 기록한 후, 향리직 소지를 나타내는 전승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중운, 『씨족원류』(영인본), 보경문화사, 1991, 260쪽, 668~669쪽.

27) 국왕의 언행도 그러한 주장의 사실성을 인정했다. 예컨대 정조(재위 1776~1800)는 1794년 공(孔)씨성의 두 응시자가 최근 각각 문, 무과시험에 급제한 사실을 보고받으며, 공자(기원전 551~479)의 후예가 한국에 와서 과거시험까지 급제했다며 매우 흡족해 했다. 『정조실록』, 39권 27앞쪽. 실록기사 인용은 『조선왕조실록』, 48권 및 색인, 국사편찬위원회, 1955~58에서 하였다. 기록상 정조의 언급이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었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15세기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는 당시의 거의 모든 한국 성씨들을 외래성이 아닌 토착성로 기재하고 있었으며, 그중에는 공씨도 포함돼 있었을 뿐 아니라 맹자(기원전 372~289)의 성인 맹(孟)씨, 주자(1130~1200)의 성인 주(朱)씨도 포함돼 있었다. 『세종실록』, 149권 10뒤쪽, 150권 30앞쪽, 151권 25앞쪽.

이다.²⁸⁾ 이러한 방식을 통해, 그다지 현달하지 못하거나 소규모의 출계집단들은 본관을 더 잘 알려진 것으로 바꾸고 그러한 본관을 이미 사용하고 있던 가계들과 시조가 같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²⁹⁾

근세의 보다 자유화 및 상업화된 경제구조 속에서, 상민과 천민들은 계속해서 성씨를 취득하였고, 이미 성씨를 가진 경우에는 그 성씨와 역사적으로 관련된 저명한 본관까지 사용하게 되었다.³⁰⁾ 조선후기 호적, 무과방목(武科榜目), 그리고 여타 기록들에는 저명한 성관을 사용하면서도 해당 문중의 족보에는 나타나지 않는 인물들이 많이 보인다.³¹⁾ 신분상승을 추구하던 하층민들은 저명한 양반 출계집단의 구성원임을 주장함에 있어 몇 단계를 거쳤어야 했다. 처음에는 일단 널리 알려진 성씨를 취득하고 그들 자신의 거주지를 본관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몇 세대 이후 거주지 대신 그 성씨와 역사적으로 관련 있는 본관으로 바꾸었다.³²⁾ 또 자신이나 선대의 직역(職役) 표기도 가능하면 보다 내세울 만한 것으로 변조했다.³³⁾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구성원임을 주장하던 출계집단의 족보에 포함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상적인 결말이었고, 이 현상은 현재도 남한에서 계속되고 있다.

상민이나 천민과는 달리,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서울지역의 전문직 중인층은 이미 족보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중기 이전 하층에서 신분상승한 가문이 대부분이었지만, 양반 서얼의 후예도 있었다. 또

28) 이수건, 앞의 책, 32~33쪽.

29) 이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3~4쪽.

30) 송찬식, 앞의 글, 50~66쪽; 백승종, 「위조 족보의 유행」, 앞의 책, 67~85쪽.

31) 무과방목 분석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이러한 추세에 대한 연구로는 Eugene Y. Park, *Between Dreams and Reality: The Military Examination in Late Chosŏn Korea, 1600~1894*, Cambridge, Mass.: Harvard Univ. Asia Center, 2007, p. 153 참조.

32) 호구장적(戶口帳籍)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이러한 하층민 현상을 해명해 주고 있다. 신분상승의 여러 단계에 대한 영어권 분석으로는 John N. Somerville, "Stability in Eighteenth Century Ulsan", *Korean Studies Forum*, Vol. 1, 1976~77, pp. 11~12 참조.

33) 김준형은 직역, 이름, 그리고 본관까지도 몇 대에 걸쳐 바꾼 하층민 가구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김준형, 「조선후기 단성지역의 사회변화와 사족층의 대응」,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278~90쪽.

드물지만 서얼이란 신분적 하자 없이 다른 이유로 양반 사대부 신분 가계가 전문직에 세습적으로 종사하게 된 경우도 없지 않았다.³⁴⁾ 조선초의 경우 양반 사대부의 서얼이나 기타 신분의 어느 한 개인이 잡과를 통해 중인 가계의 시초가 된 사례가 드물었던 반면, 17세기부터는 어느 특정 가계 내에서 잡과 입격이 대대로 지속되기 시작했다. 즉 17세기 이후에는 양반 서얼들이 일반적으로 잡과에 응시하지 않았고, 이미 구축된 전문직 중인 가계의 구성원들이 잡과에 응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서얼의 지위 변화와 잡과 제도의 성격을 반영한다. 서얼의 과거 응시와 관직 진출을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선초 양반 사대부들은 적자가 없는 아버지의 신분세습, 재산상속, 그리고 봉사(奉祀)를 놓고 서얼의 위치가 논쟁거리가 되었다. 17세기에 이르러서야 서얼이 아닌 적자 신분 조카나 조카뻘의 입양이 전형으로 정착되었다.³⁵⁾ 아울러 16세기 정도까지는 양반사회가 기술직에 대해 좀 더 열린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서얼신분이 아닌데도 잡과에 응시하기도 하였다.³⁶⁾ 따라서 17세기 이전 서얼의 잡과 입격 및 후손의 전문직 중인 가계 구성은, 전문직 중인 신분이라는 집단의 범주가 고착화 되고 중인들이 전문직을 독점하게 되기 전에 존재한,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이었다고 하겠다.³⁷⁾

34) 김양수, 「조선후기 사회변동과 전문직 중인의 활동: 역관, 의관, 음양관, 율관, 산원, 화원, 악인 등과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엮음, 『한국근대이행기 중인연구』, 174~180쪽. 저명한 전문직 중인 가계를 기록한 19세기 말 자료인 『성원록』은 대부분 가계들을 15세기 정도까지만 소급한다. 이런 경우, 초기의 몇 세대는 관품이나 관직 소유자가 없으므로, 좀 더 낮은 신분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양반 가계와의 연결이 명시된 중인 가계의 경우, 일부는 명확히 15세기 또는 16세기 양반 서얼의 후손임이 확인되지만 서얼로서의 별 다른 흔적이 보이지 않거나 ‘연결고리’ 인물 또는 세계가 연대상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창현, 『성원록』(영인본), 오성사, 1985.

35) Peterson, *Korean Adoption and Inheritance*, pp. 131~162.

36) 한영우, 「조선시대 중인의 신분계급적 성격」, 『한국문화』 9, 1988, 199~205쪽.

37) 조선후기 양반 서얼은 양반신분 응시자가 우세했던 문과뿐만 아니라 전문직 중인이 독점한 잡과로부터도 배제돼 있었다. 조선후기 문과 급제자의 경우 절반 가량이 서울 및 근기지역 출신이었던 반면, 잡과 입격자는 거의가 다 서울 거주자였다. Edward W. Wagner, “The Civil Examination Process as Social Leaven: The Case of the Northern Provinces”, *Korea*

족보를 가졌지만, 중간 계층적 사회 신분인 중인은 19세기 신분제도 붕괴가 가속화하는 와중에 족보 관련 담론들에 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외국 방문, 양반과의 지적 교류, 그리고 시사(詩社) 등을 통해 근세 상당한 문화적, 경제적 자산을 축적한 서울 중인은 향리 및 양반 서얼과 함께 점진적으로 양반가문이 독점하던 조정 고위관직까지도 진출하게 되었다.³⁸⁾ 그러나 권력의 핵심에서 의결과정과 관련되는 문반 요직의 실질적인 개방은 고종(재위 1863~1907)과 그를 지지하는 관료들이 좀 더 포괄적인 근대화 개혁을 단행하면 서야 가능하게 되었다. 중앙정부에서 보다 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것 뿐만 아니라, 중인은 근대 문화계·재계의 중심세력으로서도 급부상하게 되었다.³⁹⁾ 자신들의 중간적 성격 이면에서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 기회들을 적극 활용하였는데, 그 와중에 구시대의 신분과 시 매개로서의 족보를 어떻게 대하고 처리할 것인가는 또한 그 위, 아래 계층 인물들보다 중인에게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되었다.

전통의 창출

역사 속 주체들은 현재의 필요를 위해 과거에 대한 묘사를 변조하거나 심지어 새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 그들은 전통을 창출했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과거와의 연고를 과시했다. 하지만 그러한 연고는 상당부분 허구였다.⁴⁰⁾ 위에서 논의하였듯이, 근세 한국의 양반 사대

Journal, Vol. 17, 1977, p. 23;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중인 연구: 잡과 입격자와 그들의 가계 분석』, 이회문화사, 1999, 105~112쪽.

38) 송준호, 「조선시대의 과거와 양반 및 양인 (I): 문과와 생원진사시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학보』 69, 1976, 113~123쪽.

39) Hwang, *Beyond Birth*, pp. 232~247.

40) Hobsbawm, "Introduction", p. 2.

부들은 문명의 수호자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주류 양반사회에서 이론과 실천 양면으로 성리학적 정통성을 견지한 것은 그들의 현실 인식과 과거 이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상적인 친족집단을 유지함에 있어 족보는 중요한 기록이었던 동시에, 전통 창출의 매개가 되기도 하였다.

중인의 경우, 근대에 들어오면 상민이나 천민과 마찬가지로 ‘미천’한 연원을 숨기려 했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 즉 중인도 자신의 본관을 역사적으로 저명한 본관으로 바꾸거나 계조를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물론 현재 남한의 일반적인 족보 또는 ‘뿌리 찾기’ 논의에서 선조가 양반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거나 양반이 아닌 선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⁴¹⁾

이러한 가정은 일부 중인 가문들의 조선말기 행적과 일치하기도 하는데, 특히 애당초 중인신분을 드러나는 성관을 지녔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19세기 종합보로서 서울의 저명한 전문직 중인 가계들을 기록하는 『성원록(姓源錄)』에는 약 200가계가 나오는데, 이 중 적어도 50개(25%)는 현달한 양반가문들을 기록한 20세기 초 종합보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에는 없는 성관을 사용한다.⁴²⁾ 이러한 독특한 성관은 각 지역의 세습 향리 성씨를 열거한 15세기 자료 『세종실록지리지』에 각 군현의 토착 성씨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된다.⁴³⁾ 따라서 중인신분 가계로만 알려진 조선후기 성관은 고려 전기에 향리 및 본관 체제가 정비된 훨씬 뒤에 신분집단으로 고착화된 전문직 중인이 선대의 연고지를 본관으로 채용한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지만⁴⁴⁾ 향

41) 백승중은 향리, 상민, 노비 및 쇠락 양반가계의 계보 조작을 분석하고, 그러한 현상을 ‘통합 종중’(united lineage)의 형성으로 설명하였다. 비록 전문직 중인은 분석하지 않고 있으나, 이 연구는 그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행위를 지향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Paik, “The Formation of the United Lineages in Korea”, pp. 83~84 참조.

42) 이러한 『만성대동보』 상·하권을 1931년 출간한 편찬자들은 두 권에 기록되지 않은 문중들이 전국 각지로부터 항의하자 2년 뒤에 속편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속편은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만성대동보』, 만성대동보간행소, 1931, 상권, 1앞쪽~3앞쪽; 이창현, 앞의 책, 1~9쪽.

43) 『세종실록』. 토성개념에 대해서는 이수건, 『한국중세사회사연구』, 34~39쪽 참조.

후 연구가 절실한 문제이다.

독특한 성관을 사용하던 중인가문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관으로 바꾼 경우가 많다. 『성원록』에 기록된 이러한 가계 50개 중 적어도 31개는(62%) 1985년의 남한지역 성씨 및 본관 통계에 보이지 않는다.⁴⁵⁾ 나머지의 경우 그 규모는 1985년 당시 수십 명에서 수천 명 선을 오갔는데, 서울 및 경기지역에 몰려 있어 일면 납득이 된다. 조선후기 서울에 세거하던 중인 가문은 대개 16~17세기 초에 생존했던 선조로부터 연원하곤 했고, 가문의 구성원은 10~15세대 정도를 거치면서 20세기에 들어오면 친직계 후손 인구가 수천 명 정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근대에 들어와 모두 이복이나 해외로 이주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결국 19세기 이후 중인과 후손들이 본관을 좀 더 일반적으로 알려진 본관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된다.

해주 김씨의 사례가 전형적이다. 1885년에서 1907년 사이 어느 시점인가 가문의 구성원들은 본관을 해주에서 청풍(淸風)으로 바꾸고, 스스로를 청풍 김씨 족보에 기록시켰다.⁴⁶⁾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이었던 우사 김규식(1881~1950)의 경우 부친의 형제 중 4명이 잡과입격자로서 조선말기 잡과관련 자료에서 본관이 해주로 확인되지만 현대의 모든 한국인명사전류 자료들은 그의 본관을 청풍으로 기록하고 있다. 해주 김씨 가문 구성원 중 누가 개관(改貫) 및 계보 조작을 주도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의도는 17세기에 왕후를 배출한 노론 경화사족 가계까지 포함하는 청풍 김씨 문중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한 듯 하다.⁴⁷⁾ 오늘날 남한에서 아직도 해주

44) 사회질서가 동요하던 고려후기에 지방에서 이탈한 향리들은 대거 개경으로 와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다. 이에 중앙정부는 14세기 그들이 원래의 임무를 담당케 하기 위해 선대의 연고지로 돌려보내고자 했다. Duncan, *The Origins of the Chosŏn Dynasty*, p. 155, pp. 190~91.

45) 통계청, 「총조사인구(2000)」.

46) Edward W. Wagner, 「The Three Hundred Year History of the Haeju Kim Chapkwa-Chungin Lineage」, 송준호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엮음, 송준호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87, 별쇄, 9쪽.

47) 위의 글, 7~12쪽.

를 본관으로 쓰는 김씨 인구가 소수 있지만, 이들은 조선후기 서울 중인 해주 김씨들과는 무관한 이북이나 호남 지방에 근원을 둔 가계들에 속한다.⁴⁸⁾ 조선왕조 신분제도의 붕괴에 대한 중인 해주 김씨 가문의 대응은 상민 또는 천민 출신들의 신분 상승 전략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중인 해주 김씨와는 달리, 보다 흔한 성관을 사용한 중인 가문은 근대에 와서 중인으로서의 연원을 숨기는 것이 보다 용이하였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어느 특정 성관으로 지칭된 출계집단은 대개 고려시대 향리층에 근원을 두었지만, 물론 양반 사대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분의 구성원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고려말에 이르러 중앙관료 지배층이 향리의 중앙관직 진출을 사실상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대에 걸쳐 향리직이라도 제대로 맡지 못할 경우 신분이 강등 될 수밖에 없었다.⁴⁹⁾ 아울러 조선후기 성관 사용자 중에는 양반 서열에서 연원한 하층민도 있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그들에 대한 족보 내 기록이 서얼로부터 몇 세대 이후 멈추는 경우가 허다하다.⁵⁰⁾

근세에는 다양한 신분집단들이 지금도 흔한 성관을 사용했는데, 밀양 박씨가 그러한 예였다. 19세기에 편찬된 전문직 중인 종합보 『성원록』은 16개 정도의 중인 밀양 박씨 가계들의 상대(上代) 기록을 15~16세기까지만 소급한다. 이러한 중인 가계들이 양반 가문의 분파였는지 하층에서 신분상승한 경우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17세기에 들어와 전문직 종사자를 배출하기 전에는 대개 몇 세대동안 뚜렷한 문반 실직(實職) 소유자가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이 사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대목으로 주의할 것은, 이

48) 중앙일보사 엮음, 앞의 책, 500~501쪽. 서울 중인 해주 김씨와 근원이 전혀 다른 듯한 계파들은 조선시대에 문과급제자 두 명을 제외하고 무과급제자와 생원진사시 입격자들만을 배출하였는데, 출신지는 전국 각처로 흩어져 있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거 및 취재」,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jsp>>(2007. 5. 1 열람).

49) 이수건, 『한국중세사회사연구』, 346~352쪽.

50) 이런 경우 양반 친족들에 비해 기록이 간략한 것이 보통이다. 아울러 그 가계가 후사(後嗣)가 없이 종식되었음을 나타내는 '무후(无后)' 표기가 없는 경우가 잦다. 예컨대 1869년 간행된 밀양 박씨 족보는 양반 서얼출신 실학자 박제가(1750~1805)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의 직계 후손 기록은 2대째에서 중단한다. 『밀성박씨족보』, 1869, 6권, 26뒤쪽~27뒤쪽.

16개의 중인 밀양 박씨 가계들 중 적어도 하나는 근대 이후 발간된 밀양 박씨 족보에서부터는 양반 가계의 일파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상계미상(上系未詳) 박중산(1460년경 출생) 계통이 그러한 사례로, 이 가문은 박중산부터 4대 동안 아무런 관직이나 과거입격 표시가 없고, 5세손이 1590년경 잡과에 입격한 것으로 나타난다.⁵¹⁾ 그런데 1867년에서 1873년 사이 어느 시점에 이 가문은 밀양 박씨의 소위 규정공파(糾正公派)의 대표적인 인물인 청재 박심문(1408~1456) 계파, 즉 청재공(淸齋公) 파보에 편입되었다. 아울러 1873년에 간행된 청재공 파보에는 중산이 심문의 7남 중 하나인 생원진사시 입격자 원준(元俊)으로 대체되었다.⁵²⁾

19세기말 청재공 파보 간행 당시의 박중산 가문 구성원은 진정으로 자신들이 청재공파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조선말 중인 통청운동에서 청원자들은 선조가 본래 양반 사대부였다는 논리를 펼쳤다는 사실이다.⁵³⁾ 중인 가문 중에서 본관을 바꾸거나 종래에는 상계미상이었던 선조를 양반 가문 족보에 최초로 기록할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의 가계가 예전의 양반 족보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전술한 중인 해주 김씨 가문의 경우, 그들을 기록한 1907년 청풍 김씨 족보는 해주 김씨 단자(單子)를 제출한 ‘일가’의 말을 인용, 선조가 해주로 이거한 연유로 본관이 청풍에서 해주로 바뀌었다고 밝히고 있다.⁵⁴⁾ 중인이 남긴 글로서 계보 위조를 자인하는 언급이 있을 리 없으므로, 중인들의 양반족보로의 편입을 정당화 하는 설명은 양반 사대부 위정자로부터 동등한 처우를 주장하는 중인 통청운동 참여자들에게 있어 나름대로 중요한 전략이었을 것으로 추측될 따름이다.

위조된 계보는 창출된 전통으로서, 결국은 양반 사대부들이 본질적으로 혈

51) 이창현, 앞의 책, 464~466쪽.

52) 『밀양박씨세보』, 1873, 1권, 15앞쪽~16앞쪽.

53) 한영우, 앞의 글, 189~191쪽.

54) Wagner, “The Three Hundred Year History of the Haeju Kim Chapkwa-Chungin Lineage”, 9~10쪽.

통에 근거를 둔 자신들의 특권과 정통성 합리화에 오히려 동조하는 성격을 가졌다. 계보를 위조한 중인은 보다 낮은 신분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연원을 양반가문에서 찾고자 했으니, 그러한 태도는 피지배층을 족보 논의에서 배제한 기존의 지배담론에 더욱 힘을 실어 주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제 근대에 들어 와서 이들과는 달리 정작 족보 편찬에 참여하지 않은 중인과 후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배담론의 거부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인사들은 족보와 같이 자기과시적인 매개나 이상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이 장악한 권력구조를 재생산해 내기 마련이다. 주류적 담론은 기득권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며,⁵⁵⁾ 근세에 피지배층이 양반 혈통을 추구한 사실 자체가 바로 당시 집권층 양반 신분을 외관상으로라도 모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 19세기초에 이르면 서울에 세거한 10여개 노론 경화사족 가문들이 정치권력을 독점하였는데, 적어도 이론적으로 그들의 특수한 위상을 뒷받침해 준 것은 현달한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사실, 즉 혈통이었다.⁵⁶⁾ 물론 이러한 현실은 권력에서 소외된 다른 양반 가문들뿐만 아니라 중인들에게도 대단히 불만스러운 것이었는데, 전문직 종사를 통해 국가 및 양반 위정자들에게 봉사하며 경제적, 문화적 자산을 축적한 중인에게는 중앙권력에서 도태된 재지사족보다 불만감이 오히려 더 강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조선말 신분제도의 붕괴는 중인들로 하여금, 족보를 신분차별의 상징물로 부정하게 한 것일까?

55) Joseph V. Femia, *Gramsci's Political Thought: Hegemony, Consciousness, and the Revolutionary Process*, Oxford: Clarendon Press, 1981, pp. 24~26.

56)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사연구반, 『조선정치사(1800~1863)』(상), 청년사, 1990, 243~256쪽; 송준호, 앞의 책, 283~284쪽.

기존 연구성과는 이러한 의문에 충분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중인 가계들을 포괄하고 있는 근대 족보들의 경우, 중인 계파 기록이 대개 19세기 중반 또는 후반에서 멈춘다는 점이 주목받지 못했다. 19세기 말 『성원록』의 목차에 기재된 200여 개의 중인 가계 중 필자는 근대 족보에서 지난 수년간 69개를 찾아보았다. 이 69개 가계 중 21개는 근대 족보에 아예 등장하지 않고, 나머지 48개의 경우 30개는 가계 기록이 19세기에서 멈추고, 그 이전 세대의 기록조차 누락된 부분이 많다. 오로지 18개 가계의 경우에서만 기록이 20세기 이후 후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⁵⁷⁾

필자가 연구자들에게 이 점을 지적하면, 중인 자신들 선대의 신분이 드러난 기록으로서의 족보 보존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이 공통적인 답변으로 돌아왔다.⁵⁸⁾ 하지만 그러한 추정은 통치운동을 벌이던 19세기 중인들이 자신들의 선조가 양반가문의 일원이었음을 주장한 점, 그리고 일부 중인가문의 경우 사실이었다는 점등을 간과한 것이라 생각된다. 근대화와 개혁을 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인이 개화기 이후에도 여전히 양반 혈통이라는 기준을 근거로 자신들의 가치를 산정하고 있었다는 추측에서 벗어나 볼 수는 없을까? 한국사 연구자들은 비양반사회 주체들 중 중인에 좀 더 주목, 그들이 과거와 전통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였음을 고려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한 중인의 상당수는 양반이 오랫동안 독점해 온 족보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찾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듯한데, 중인 한양 유씨 가문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양 유씨 계파들을 기록하고 있는 근대 유씨 대동보들은 개화파의 정신적 지존이라 할 수 있는 유대치(1831~?)의 행적을 전혀 언급 하지 않을 뿐 아니라, 1860년대 이

57) 이창현, 앞의 책, 1~9쪽.

58) 신분에 붙은 오명이 중인의 후손들로 하여금 가문의 내력을 찾아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Hwang, *Beyond Birth*, note 3, p. 381.

래의 중인 한양 유씨 행적은 아예 다루지 않고 있다.⁵⁹⁾ 1800년과 1864년 사이에 태어난 129명의 중인 한양 유씨 가문 구성원 중 110명(85%)의 경우 20세기 이후 후손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위 세대의 기록들이 빈약하나마 출생연도, 사망연도, 묘지 위치 등을 기록한 것과 달리, 19세기 후반 이후 가문 구성원 기록들은 출생연도만 기록하였는데, 이는 후손들이 근대에 들어와서 유씨 족보 편찬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⁶⁰⁾ 일본의 메이지유신으로부터 감명을 받았으며 실패로 끝났던 갑신정변(1884)의 주도자들과 주변의 개화파 인물들에게 유대치가 끼친 영향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고려하면, 한국의 근대 족보들이 그의 생애에 대해 출생연도를 제외하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점은 다소 의외라는 느낌이다. 이쯤 되면 엄연히 자랑할 만한 선조를 가졌던 근대 지향적 중인들이 족보를 양반 혈통을 강조하는 매개로 여기고 족보 간행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의심해 볼 법하다. 이러한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유대치의 좀 더 먼 중인 친척들 중 기록이 현대까지 내려오는 사례가 보이긴 하지만, 그들의 묘지가 영남지방에 위치해 있는 점 및 연대가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후손들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⁶¹⁾ 그들은 족보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중인 유씨 일원들과는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인의 활동에 대해 보다 상세한 기록을 갖춘 근대 족보들조차 중인가계 기록이 상당 부분 19세기에서 멈추는데, 천녕 현씨가 대표적이다. 중인 천녕 현씨 계파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연주 현씨 대동보는 구성원들의 잡과 입격과 전문직 관련 사항을 출생연도, 사망연도, 묘소 위치 기록에 수반해 남기고 있다.⁶²⁾ 하지만 1800년에서 1864년 사이에 태어난 117명의 구성원

59) 『유씨대동보(劉氏大同譜)』(9권), 유씨대동종친회중앙총본부, 1975, 667~713쪽. 이 점에서 1994년 출간본도 다르지 않았다.

60) 위의 책.

61) 위의 책, (9권)682~683쪽.

62) 연주현씨대동보편찬위원회, 『연주현씨팔수대동보(延州玄氏八修大同譜)』, 2001, (1권) 178~190쪽, (2권) 1002~1052쪽, (6권) 477~574쪽.

중 53명의 경우(45%) 20세기 이후 후손들이 전혀 기록돼 있지 않다.⁶³⁾ 한양 유씨에 비해 천녕 현씨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여러 방면에서 보다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인물들을 더 많이 배출했지만, 후손들의 족보 편찬에 대한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았던 것 같다.

족보가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이 간행된 출판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았을까?⁶⁴⁾ 조선 유수의 신문이었던 동아일보는 1926년 「弊習陋慣부터 改革하자(四) 族譜勢와 兩班心」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조선에서 가장 근대적 도시이어야 할 경성(京城)에 많은 사람들이 양반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 비해 우월시하는 봉건적 관행의 유물로서의 족보 편찬에 아직도 중요시 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⁶⁵⁾ 이 사설은 나라를 잃은 상황에 개인의 양반 조상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고 있다.⁶⁶⁾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1928년에는 1918년 다양한 출신성분의 근대 지식인 33인이 사회개혁을 목표로 결성한 계명사가, 조선인들에게 봉건 잔재임이 분명한 족보 편찬에 국력을 허비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⁶⁷⁾

교양 있는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유력 일간지를 통해 표출된 이러한 입장은, 족보에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고 있던 대다수 중인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함과 동시에 커다란 이념적 지지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63) 위의 책, (2권) 1002~1052쪽, (6권) 477~574쪽.

64) 이 글의 심사위원중 한 명은 식민지 사회에서 족보 편찬이 가지는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천착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즉 대동보의 편찬은 식민지 한국이란 상황에서 정치적 실천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를 뛰어넘는 동성(同姓), 종씨(宗氏)의 창출과 조직 활동은 한국현대정치에서도 상당한 의미의 동류의식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물론 필자는 이 지적에 공감하며,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현상들이 그 동안 연구자들로부터 잘 분석이 되었고, 또 남한사회에서는 대부분 일반인들에 있어서 조선후기 이후 고착화된 족보관련 기본서사를 떠나서 자신의 뿌리를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도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이 맥락에서, 필자는 근대에 들어오면서 대두된 족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가 한국사회 발전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의 논의도 중요하다고 본다.

65) 「弊習陋慣부터 改革하자(四) 族譜勢와 兩班心」, 『동아일보』 1926. 9. 14.

66) 위의 글.

67) 「族譜刊行의 餘弊」, 『조선일보』 1928. 2. 1.

로, 그들의 후손 중 필자가 인터뷰한 다수는 선조들의 중인 신분을 알지 못했거나. 상당수의 경우 족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 조선시대 선대의 신분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후손들은 개화기 이후 선조들이 보인 근대지향 및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⁶⁸⁾ 이러한 현상은 그들이 근대 족보와 무관해진 것이 양반이 아니었던 조상들이 부끄러워서라기보다, 구시대적 관습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하는 듯하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신분적 하자로 인하여 숨기려 한다는 추정은 현대 남한사회에서의 족보 논의에 참여하는 일반인은 물론이며 일부 한국사 연구자들 스스로가 자신도 모르게 조선후기 고착화된 양반 중심의 가족사 담론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일부 중인의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이 자랑스러워서 족보를 통해 그러한 감정을 표출하려 했을 수도 있을까? 실제로 그러한 의식이 일부 중인후손 한국인들로 하여금 근대 족보 편찬에도 계속 참가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가족사기록으로서의 족보

19세기 한국의 지식인들은 역사서술이 신빙성 있는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고대 성현의 가르침으로서의 경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주지하다시피 18~19세기 실학자들은 사료인용 근거 제시 및 사표 비판으로 가득 찬 글들을 많이 남겼다.⁶⁹⁾ 비록 남한사회의 계보 논

68) 현재까지의 인터뷰 대상자(실명), 날짜, 장소는 다음과 같다. 박병해, 1995. 10. 5, 서울; 박근동, 2004. 9. 13, 경기도 안성(전화); 추자 조(Chu Ja Cho), 2004. 9. 27,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전화); 박영일, 2004. 10. 4, 대전(전화); 재니스 김(Janice Kim), 2007. 3. 9,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 추자 조, 2007. 5. 27, 위의 장소; 박근동·박영일, 2007. 7. 7, 대전; 방기준, 2007. 9. 22, 충청남도 부여(전화). 최근 연구에 의하면, 특히 명문 중인 가문과 그 후손들은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문을 상민과 동등시 하는 인식에도 대응하였다. Hwang, *Beyond Birth*, pp. 115~120 참조.

의는 여전히 양반신분이 가정된 성관, 파, 향렬자, 족보 등의 개념이 기본 서사들을 공고히 엮고 있지만, 일부 중인 후손들은 객관적인 가족사로서의 족보 편찬에 계속 참여해 왔다.

19세기 중인 후손들로 족보 편찬에 계속 동참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전술했듯이 필자가 조사한 69개의 중인 가계 중 18개만이 근대 족보에 그 후손기록이 보인다. 이미 살펴본 중인 가문 중 대부분이 가문 구성원이 마지막으로 족보에 기재된 종료점 이후에도 기록이 계속된 후손은 해주 김씨의 경우 21명중 10명(1907년 이후), 한양 유씨는 129명 중 10명(1864년 이후), 천녕 현씨는 117명 중 64명(1864년 이후) 뿐이다.⁷⁰⁾ 실제로 기록된 근대 후손들 중 일부는 전술한 편입된 한양 유씨의 사례와 같이 실제 후손이 아닌 경우도 상당수 발견된다.

일부 중인 후손들이 족보 편찬에 계속 동참한 것은 족보를 신분과 관련된 구시대적 산물이 아니라 객관적인 가족사 자료로 인지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술한 천녕 현씨의 경우, 2001년 간행본 현씨대동보는 중인 구성원들의 기술적 관력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 한 사례가 주목된다. 현순(1878~1968)은 감리교 목사이자 독립운동가로서, 후손들이 미국에서 뿌리를 내렸다.⁷¹⁾ 그의 자제 중 데이빗 현(David Hyun, 1917년생)은 로스앤젤레스의 한미연대(Korean-American Colation) 창립자였으며, 로스앤젤레스 소재 일본상점가 리틀 도쿄(Little Tokyo) 등의 설계로도 유명한 건축가이다.⁷²⁾ 이 족보는 여느 한국 족보와는 달리 미국에 소재한 구성원들도 상세히

69) Palais,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pp. 9~10.

70) 청풍김씨세보편찬위원회, 『청풍김씨세보』, 1989, (3권) 366~373쪽, (6권) 271~275쪽, (7권) 444~454쪽; 『유씨대동보』, (3권) 763~782쪽, (9권) 667~713쪽; 『연주현씨팔수대동보』, (2권) 1002~1052쪽, (6권) 477~574쪽.

71) 『연주현씨팔수대동보』, (6권) 503쪽; 한국학중앙연구원, 「현순」,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2007. 5. 1 열람). 후자는 현순의 출생연도를 1880년으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 족보는 1878년으로 기재하고 있다.

72) 『연주현씨팔수대동보』, (6권) 504쪽; Ellen Diner, "David Hyun—Architect and Idealist", *Connecting Neighbors*, 2005. 1. 13, <<http://gen3.connectingneighbors.com/static/2258.pdf>>

기록하였다. 그들의 학력 및 경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어 이름들이 한글로 기록돼 있으며, 한국계가 아닌 배우자들의 이름도 나온다.⁷³⁾ 남한의 많은 젊은이들이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족보를 현대사회와 무관한 구시대의 산물로 생각할수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 족보의 한국계 미국인 기록 방식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 느껴질 정도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천녕 현씨 가문의 족보 편찬에 한국계 미국인 구성원들이 계속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 족보를 신분 중립적 기록으로 보는 근대 서구적 관념의 소산인지가 궁금해진다. 19세기 중인의 후손으로서 유사한 업적을 거두었으며 계속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의 경우, 그들 또한 족보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졌을까? 또 후손들 중 최소한 족보에 기록된 현순의 후손들처럼 근대에 와서 특별히 ‘내세울만한 것’이 경우는 어땠을까.

근대에 일부 중인 후손들은 자신들의 현주소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선조들을 드러낸 족보 편찬에 참여해 왔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로 인정받는 김범우(세례명 토마스, 1751~1786)를 배출한 중인 경주 김씨 가문이 대표적인 사례다. 역관 가문 출신인 그는 1785년 자신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취조를 받고, 고문 중의 부상으로 이듬해 사망하였다.⁷⁴⁾ 그의 가계를 기록한 1989년 간행본 경주 김씨 충선공파(忠宣公派) 족보는 후손들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⁷⁵⁾ 저명한 선조가 한국 기독교사에 있어서의 위상이 후손들에게 근대에 들어와서도 족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볼 때, 19세기 중인 중 소수의 후손은 족보 편찬에 계속 참여해 왔는데, 이는 족보를 구시대의 신분 차별의 매개로서가 아니라, 대신 보다

(2007. 5. 1 열람).

73) 『연주현씨팔수대동보』, (6권)503~504쪽.

74)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범우」,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2007. 5. 1 열람)

75) 경주김씨충선공파족보편찬위원회, 『경주김씨충선공파족보(慶州金氏忠宣公派族譜)』, 1989, 294~295쪽, 393~397쪽, 496~498쪽.

객관적 가족사 기록으로 이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혈통 보다는 능력으로 사회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한 자긍심은, 선조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성취 까지도 선양하게 하였다. 이러한 자세는, 가족사 논의에 있어서 인간 경험의 다양성 존중을 지향하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뿐 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앞으로의 발전방향 모색에도 의미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맺음말

전문직 중인이 한국 근대화의 전위에 나선 이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방식의 대응이 바로 신분 및 가족사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듯 하다. 첫째, 신분을 막론하고 개인의 성취에 대한 주목이(특히 공교육 제도하의 역사교육을 통해) 주류 담론에 반영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비양반층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선조들에 대한 자긍심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듯 광범위한 변화들이 족보들을 지배층 중심의 가계 기록에서 객관적인 가족사 기록으로 변모시킨다. 근대화를 환영한 중인 후손들 대부분의 반응이 구시대 지배담론으로서의 족보를 거부한 반면, 소수는 그에 계속 동참함으로써 가문의 자랑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동일한 변화가 현대 남한 사회의 다른 영역들에서 더 느리지만 진행되어 온 것을 보여주지 않나 여겨진다.

하지만 엄연한 현실로 볼 때, 아직도 족보는 실증적인 가족사연구의 생산물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는 가족사와는 거리가 있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지면상이던, 인터넷상이던 족보나 뿌리 찾기 관련 논의에 참여는 어느 성씨, 어느 본관, 어느 파, 어느 향렬, 어느 집성촌 등등의 개념에 의존, 개인이나 집안의 선대가 양반이었음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예컨대 수백년전의 선조가 어느 특정 지역에서 농민, 수공업자, 상인, 또는 군졸이었다

는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많은 서구인들이나 일본인들과는 대조적이다. 남한의 경우, 진정한 양반 가문의 후손들 또는 양반이 자신의 선조였다고 믿는 상민 또는 천민의 후손들이 족보 논의의 가장 적극적인 참가자들이라면, 필자는 인터뷰 등을 통해 대부분의 중인 후손들의 경우 이 사안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느꼈다.⁷⁶⁾ 족보 관련 논의가 워낙 굳게 왕실이나 양반을 강조하는 조선후기 서사에 얽여 있는 바, 평범한 남한 사람의 경우 물론 한문의 해독 문제도 걸림돌이지만, 창출된 전통을 넘어 근세의 호적, 토지대장, 양안, 군적 등과 같이 서구사회에서 가족사 조사 때 필수로 여겨는 자료들을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전문 연구자들조차 그러한 사료들을 중세 및 근세 사회 자체 분석에만 활용할 뿐, 근세와 근대에 걸쳐 전개된 피지배층의 역사를 생생한 가족사나 흥미로운 인간상의 제시를 통해 서사의 전면에 내세우는 데에는 갈 길이 먼 것 같다. 물론 특히 1970년대부터 역사의 진정한 주체로서 지배층보다는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강조하는 시각이 대두했지만, 보다 완전한 역사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식의 고취가 근대 이행기에 보다 평범한 사람이나 가족은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충분히 해명,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⁷⁷⁾ 1차 사료가 계속해서 발굴, 번역, 또는 영인 되고 그러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되고 있지만, 근세 및 근대 한국역사상 평범한 인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호적자료들의 태반이 아직 일본에 남아 있는 실정이다.⁷⁸⁾ 그 때문에 한국사 속의 사회변동에 대한 역사적 분석은 가

76) 각주 68에 거명된 인터뷰 대상자들.

77) 존 B. 던컨 또한 민중 지식인들은 근대 한국의 권력 주체들이 한국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유교의 근본적 윤리를 활용했음을 인지하면서도, 사회 및 친족관계의 전근대적 모델은 그리 비평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John B. Duncan, "Confucian Social Value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Lewis R. Lancaster, Richard K. Payne (ed.), *Religion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 of California, 1997, p. 68.

78) 일본 내의 그러한 자료와 관련해서는, 東洋文庫東北アジア研究班(朝鮮), 『日本所在朝鮮戶籍關係資料解題』, 東洋文庫, 2004, 342~345쪽 참조.

족이나 개인 보다는 신분집단, 계층, 사상 및 사회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아직도 많은 한국사 연구자들은 자신의 기록을 남긴 엘리트들에만 계속하여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유명인사(특히 지식인들)는 역사학자들의 연구에서 선호되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주로 지배층이나 지식인 관련 정보가 위주인 인명사전 및 인명정보 데이터베이스들은, 예컨대 조선시대 인물들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비양반층 인물들을 이례적인 사례로 치부하고 있다. 즉 대상 인물이 중인일 경우, 그의 신분이 중인이었고 한국사의 주류담론상(특히 개화기 이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초점을 맞출 뿐, 그의 잡과 입벽 정보나 다양한 전문직 관력 등의 정보제공에는 인색하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양반 신분 인물에 대한 설명은 그가 역사상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생원진사시 및 문과 합격 이전의 유학(幼學) 신분에서부터 상세한 관력을 제시한다. 근대 남한의 역사 담론에서 전통시대의 정상적인 인간은 양반 남성이었던 말인가?⁷⁹⁾

민주화에 성공한 남한에서, 과거의 다양한 인간상을 보다 생생하게 그려내는 작업은 진행 중인 셈이다. 전문 역사가들 및 중인의 후손들을 포함, 많은 남한 사람들은 족보는 현대 사회에서 필요치 않은 구시대의 산물로 보는 것 같다.⁸⁰⁾ 그러한 인식은 족보가 현재 신분집단이나 계층집단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조선시대 양반들을 조상으로 과시하기 위한 기록으로의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몇 세기를 걸쳐 근세에 활성화 된 족보라는 텍스트가 좀 더 평등 지향적인 자료로 다시 태어나면 어떨까? 그럴 경우 남한 사람들은 계보에 관련한 논의를 조상의 신분이나 혈통에 연연하는 대신, 객관적인 가족사

79) 이러한 경향은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한국 전기 자료들, 예컨대 한국인명대사전편찬실, 『한국인명대사전』, 신구문화사, 196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28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등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80) 백승중, 「위조 족보의 유행」, 앞의 책, 67~85쪽; 이기백, 앞의 글, 107~117쪽.

얘기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한국인의 절대 다수였던 하층민들과 오늘날도 한국인의 절대 다수를 구성하는 그들의 후손들 사이의 관계 및 연속성을 좀 생동적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사 논의가 대다수 한국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선조가 장인이었든, 뱃사공이었든, 또는 노비였든 상관없이 근대 한국의 태동에 맡았던 역할들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날을 기다려보고 싶다.

(번역: 이강한)

주제어: 주체, 조선왕조, 족보, 중인, 후손, 담론, 혈통, 한국, 신분

투고일: 2008년 8월 1일

심사완료일: 2008년 10월 1일

게재확정일: 2008년 10월 15일

Abstract

A Search for a New Family History

Genealogy Compilation and Chungin Responses in Modern Korea

Eugene Y. Park

In Korea, master narratives structure discussions of ancestry. In the early modern era, status-conscious nonelites made pedigree claims, but discussions overlook the *chungin* who, neither aristocrat nor commoner, accumulated economic and cultural capital as experts in various fields. This study argues that as a rigid status hierarchy broke down in the nineteenth century, varied *chungin* responses reflected the phases that Korean society has undergone regarding perceptions of status and descent. Although possessing family registers, *chungin* became ambivalent toward them. While some invented traditions, most rejected the hegemonic discourse on pedigree by ceasing to participate in genealogy compilations. Still others have kept records for record's sake. Noting Korean historiography's tendency to center aristocratic males, this essay raises questions about historical agency.

Keyword: agency, Chosŏn, *chokpo*, *chungin*, descent, discourse, genealogy, Korea, status.